

# 도심권 공원 조성사업 주력

### 익산시, 연내 마동·모인·수도산 공원 토지보상 협의

### 주민 삶의 질 향상,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발판 마련

익산시가 도심권 공원 조성사업의 2021년 추진을 위한 밑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심권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마동·모인·소라·수도산·팔봉공원 등의 2021년 상반기 개발에 돌입한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도심권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 여의도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마련된다.

시는 올해 안에 마동·모인·수도산 공원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라산·팔봉(1지구) 공원은 상반기 토지보상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팔봉공원(1지구)은 현재 토지, 지장물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후 보상계획협약공고와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마동공원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수도산공원은 '남부권 복합커뮤니티공간', 모인공원은 '청춘이 One'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팔봉공원(1지구)은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소라공원은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환상빛 문화공간' 등으로

변모한다.

시는 분야별 테마 속에 도서관 수영장,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특색을 살린 휴식공간이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각 공원에 반영,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발판을 마련한다.

이들 공원에는 총 76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시는 도심 내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 신규 아파트 공급을 통해 인구 유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할 예정이다"며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이웃사랑 온도 수직 상승 중

### 전북은행 마스크 5만장·군산원에농협 짬뽕라면 500박스 기탁

군산시에 겨울철 코로나의 지속되는 확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온정이 잇따랐다.

14일 전북은행은 KF94마스크 5만장(2,500만원 상당)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성란 부행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군산원에농협협동조합(조합장 고계곤) 임직원 및 부녀회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군산짬뽕라면 500박스(1,1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원에농협 고계곤 조합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군산시민을 위해 기부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성품을 전달해 주신 전북은행과 원예농협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시민에게 전해져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 진행

### 정책제안대회 공모 진행

군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로 참가대상은 관내 만7세~19세(초·중·고등학생 포함)이며, 정책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군산시라는 주제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기타 등 총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 또는 이메일(afamgrsk@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스피치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생활복지-군산어린이시절'에서 참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모바일 전송 서비스는 그동안 종이로 발행되던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됨으로써 고지서 분실 염려가 없고 부과 내역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게 되어 연간 2,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모바일 고지서 신청수용기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시 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수도사용료 납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핸드폰의 '수신내용 음성 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고지서 신청 방법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수도요금조회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상수도사용료 1월부터 전자고지서로

# 익산시,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기관' 표창

### 백제왕도 핵심유적·고도지역 체계적인 활용 등 기여 공로 인정

익산시의 문화재 보존·관리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익산시는 문화재청이 수여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포상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고도지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향후 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재 정비를 실시해왔다. 이어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 시민 참여를 유도한 행정 추진을 통해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해 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백제왕도 핵심유적(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익산토성, 쌍릉 금마도 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에 대한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마·왕궁 일원의 고도 원형회복과 고도지구 내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민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과 각종 역사·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왕도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

시는 또 구도심 일원의 근대역사문화공간(남부시장 주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옛 이리 일대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를 통해 개항 도시 일색의 근대문화유산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백제왕궁과 미륵사지 정비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함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활용한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유하며 누리고 미래에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 줄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에 맞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췁대상 전북당공장에서 14일 나눌수록 맛있는 청정원 행복꾸러미 1,170세트(5,8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전달했다.

#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꾸러미' 예요"

### 대상, 총 5850만원 상당 1170세트 군산시에 기탁

군산시는 췁대상 전북당공장에서 14일 나눌수록 맛있는 청정원 행복꾸러미 1,170세트(5,8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꾸러미는 대상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시를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1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꾸러미 품목으로는 미원과 고추장, 된장 간장 카레, 맛소금 스펀 등 16종의 실속있는 식품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광용 췁대상 전북당공장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하고 소외계층 지원활동 등 사회공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대상 임직원과 청정원봉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산시는 앞으로 사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 강임준 시장, 연말모임 자제·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14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3명의 군산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군산 111번 확진자 A(60대)씨는 무증상으로 지난 13일 군산 11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4일 새벽 0시 20분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을 받았다.

군산 112번 확진자 B(70대)씨는 지난 13일부터 목이 답답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날 군산 11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4일 새벽 0시 20분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 113번 확진자 C(20)씨는 무증상으로 지난 13일 군산 110번과 111번확

진자와 접촉했다.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4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에 대한 CCTV를 확인해 동선과 방역을 마쳤으며 추가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군산지역이 감소를 보이던 추가확진자가 나오며 다시한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느슨해 질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소모임과 연말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